



일본 선수 소개 Korea vs Japan

일본세 들이 지난해의 리벤지 무라카미 히로유키를 중심으로 한국 세력을 요격한다



무라카미 히로유키

이토에서 열린 12년 제1회 대회는 무라카미 요시히로가, 한국 광명 경륜장에서 개최 13년 제2회 대회는 김민철이 우승으로 지금까지 상대 전적은 1승 1패. 개최지의 장단점도 있어, 과거 2 대회는 모두 홈의 선수가 우승을 장식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올해는 모국에서 열리는 일본의 차례. S급 S반 무라카미 히로유키를 중심으로 한국 세력을 요격한다. 무라카미는 14년 2월 전일본 선발 경륜을 제패하고 3년 만에 S급 S팀에 복귀했다. 11월 경륜제를 앞두고 허리를 다쳤으나 경륜제, 기시와다 기념 경주를 보는 한, 불안은 없다고 예상된다. 날카로운 경기 운영,

견실한 레이스로 일본세의 축이 된다. 기동형도 카와무라 코오지에, 사토 토모카즈, 나카가와 세이이치로, 키리야마 케이타 로우 등 충실한 포진이다. 카와무라는 한일 대항전 경륜 첫 참전. 전회 대회에서 굳은 결속력을 보인 한국 세력을 상대로, 특유의 기동력으로 어떻게 직면할런지... 키시와다, 마츠도에서 기념으로 연속 결승 3착으로 컨디션은 양호하다. 사토는 제2회 대회에서 결승 3착. 결승은 33뱅크에서 밀리지 않고 한국세 분단 책으로 나왔지만 이번에는 400뱅크에서 개최. 바깥쪽을 노려 주특기인 스피드를 발휘할 것이다. 첫 참전이 되는 나카가와,

키리야마에도 주목의 대상이다. 한국 개최였던 아시아 대회 스프린트를 제패한 나카가와를 한국세가 모를 리가 없다. 지명도에서 보면 한국이 가장 경계하는 선수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사토우 토모카즈

현재 가장 충실한 시기를 맞고 있는 나카가와가 그 포위망을 극복할지는 이번 대회에서도 가장 큰 볼거리가 될 것이다. 쇄골 골절에서 회복 중의 키리야마도 높은 레벨의 자유전으로 한국세에 충격을 줄 것이다. 3대회 연속 출전으로 한일 대항전 경륜을 꿰뚫고 있는 마츠오카 타카히사, 스케일이 큰 경주에 강해 14년에 크게 도약한 아이카와 에이고. 이어 아타케 사토시, 나카무라 카즈마사 등 빅 레이스에서도 활약하는 기동형의 존재도 있어서는 안 된다. 추입형으로는 하야시 유우 이치가 무라카미의 다음가는 존재이다. 정교한 코스 선정과 날카로운 움직임은 매력 충분. 기동형이 풍부한 올 시리즈는 활약의 기회도 늘어날 것이다. 11월, 12월에 키시와다, 마츠도에서 기념 연속 결승에 진출한 시무라

타이가도 충실한 현황. 일본의 분위기 메이커는 호조의 컨디션으로 존재감을 과시한다.



나카가와 세이이치로우



제3회 한일 대항전 경륜

일본 출전 선수 통계

Table with columns: 등급, 선수명, 일본어 표기, 나이, 전 4 개 월 평 균득점, 마지막 10 회 성적 (1 등회수, 2 등회수, 3 등회수, 4 등이하), 선 행 회수, 마지막 10 회 입상 (1,2 등) 회수, 지난 3 년간 (코치) (1 등회수, 2 등회수, 3 등회수, 4 등이하)

2015.1/26 MON 27 TUE 28 WED 도쿄 오발 케이오카쿠 ※ 데이터는 2014 년 12 월 20 일 시점입니다.

Table with columns: 등급, 선수명, 일본어 표기, 나이, 전 4 개 월 평 균득점, 마지막 10 회 성적 (1 등회수, 2 등회수, 3 등회수, 4 등이하), 선 행 회수, 마지막 10 회 입상 (1,2 등) 회수, 지난 3 년간 (코치) (1 등회수, 2 등회수, 3 등회수, 4 등이하)